

# 봉은사 중창불사 40년 만에 본격 시동

### 올 10월 첫삽, 2025년까지 3단계 불사 계획 돌입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의 중창 불사가 40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7월 23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은사 중창 불사 계획안이 21일 도시공원위 심의를 통과해 올해 10월 안에 중창불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은사는 2만여 평에 달하는 입지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편의성, 역사성 등으로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시민들과 외국인이 즐겨 찾고 있다. 하지만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기도·수행을 비롯한 종교활동에 필요한 건물들의 신·증축과 시민 휴식공간 건립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요법당의 법회공간이 부족해 마당에 지어진 임시법당에서 법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스님들 거처인 요사채를 비롯해 식당 등 대부분의 건물이 가건물이다.

봉은사는 이에 2008년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사업 계획이란 중창불사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13년 서울시 조례 개정에 이어 이번 도시공원위 심의 통과로 사실상 제한은 사라졌다.

봉은사는 총 3단계로 나눠 불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016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불사에는 정부와 시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1단계 불사에서는 현재 지정된 옛 가건물 7개동을 철

거하고 이 곳에 전통문화체험관 2동을 건립한다. 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통문화체험실, 수행실, 강의실, 식당 등이 들어선다.

2단계 불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외국인VIP 숙소를 비롯해 요사채와 신종루, 기도회랑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현재 예식장으로 사용 중인 문화회관을 반환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신도회관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전통문화체험관 설립부터

### 역사문화공원 조성 추진

### 봉은사 “40년만의 쾌거”

### 불사 의견 수렴도 진행

3단계불사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6층의 불교종교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법당루와 전여문, 일주문 등도 1920년대 자료에 근거해 재건축될 예정이다.

원학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을 밝혔다. 스님은 “현재 문광부 기금과 시 예산, 기도정진을 통한 불사금을 일부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어려



봉은사 중창불사 마스터플랜 조감도. 조감도 중앙이 현재 주차장 부지로 불사 후 공원으로 바뀐다.

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국회예결위를 찾아 봉은사 역사공원 필요성을 홍보하고 문광부 기금 10억원을 유치하기도 했다. 봉은사에 연간 외국인 방문자 수만 30만명이 넘는다는. 예산 지원의 이유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때 비막이 임시법당 철거요청이 있었다. 이에 문화재위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공간 마련 후 철거하겠다고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스님은 “남은 불사금은 화주를 통해 충당하며, 내년 정부예산도 충분히 신청할 예정”이라며 “봉은사는 직영사찰이기 때문에 중단의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봉은사는 불사추진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한 상태로 위원장은 불국사 종상 스님이 맡았다. 불사추진위원회에는 종단 측 인사와 신도회도 참여할 예정이다.

스님은 “〈운영백서〉 발간 이후 매뉴얼에 의한 운영이 되고 있다. 종단에 보고가 이뤄지며 매분기 감사도 진행된다. 신도들에게는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상황이 공개된다. 불사 또한 매우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스님은 “직영사찰 주지는 재산 관리인으로 원장 스님이 주지”라며 “직영사찰 주지 임기 2년은 원장 유고시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이지만 사실 제한은 없다. 떠나는 날까지 맡은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인근 지역에 다시 개발되며 현재보다 외국인 방문객이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봉은사에서 한국전통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겠다”며 불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은 7월 23일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기금 5천 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맨 오른쪽)이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사진=노덕현 기자

## “네팔 위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 한마음선원, 포교원 산하단체 등 7월 23일 동행에 기금 전달

### 총 모금액 20억 원 돌파

네팔 지진 참사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운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네팔 구호기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인 포교사단(단장 광명희)과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박순), 국제포교사회(회장 신외균) 등도 4069만8320원을 십시일반 모은 해 아름다운동행에 전했다.

주지 혜원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재)한

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5곳의 지원에서 온정을 모았다. 네팔 지진 이재민들에게 뜻 깊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불교여성개발원에서 570만원, 그 외 포교사단에서 3600만원의 기금을 모아줬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구호기금은 네팔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주요 기부 단체들과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구호 기금으로 모인 성금은 7월 23일 현재 20억 원을 돌파했다.

신성민 기자

## 문제 풀면 기부 동참...진화하는 나란다 축제

### 조계종 포교원·은정재단, 제7회 나란다 축제 개최

9월 5·6·16일 동국대 등서 진행  
1문제 정답시 100원 기부금 적립  
탄자니아 농업학교 건립에 동참

교리 경연 등을 통한 불교 인재 양성의 장인 나란다 축제가 이번에는 간접 기부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나란다 축제’는 9월 5·6·16일 등 3일간 서울 동국대학교 일원을 비롯한 전국 군법당, 사관학교 등지에서 개최된다. 부문별 참가접수는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다.

이번 나란다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부 동참’이다. 부문별 참가자 1인이 1문제의 정답을 맞출 경우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경시대회 및 맨스대회 참가자는 응시만으로도 100원이 자동으로 쌓인다.

‘제7회 나란다 축제’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교리 경시대회 △전통문화 체험마당 △백일장 및 사생대회 △회화마당 △나란다 K-맨스경연대회 등 6개 마

당으로 펼쳐진다.

나란다 축제의 시발점이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 중·고등부는 서울 동국대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역에 지역별 시험장을 개설, 참가 학생들의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지역별 시험장에는 문화마당 부스가 별도로 설치돼 응시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다. 경기·강원권은 서울로 직접하며, 대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동시에 진행된다.

K-맨스대회는 9월 5일 오후 7시 장소를 대문대 굿모닝시티 특설무대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예선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영상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결선 진출자는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초등생과 일반부, 외국인 부문 모두 9월 5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오전 11시 시작되는 일반부는 개인별 참가가 원칙이며,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만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성민 기자

## 도난 문화재 전담 수사관직 창설된다

경찰이 문화재 전담 수사관을 두고 문화재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7월 19일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40명 내외로 구성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전문수사관은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의 전공자나 문화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위주로 구성되며 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추가된다.

그동안 문화재 범죄 수사에서는 도난이나 국외 밀반출은 광역수사대와 강력팀이, 유지보수 관련 비리는 지방범죄수사대와 능동팀이 각각 수사하는 등 이원화된 부분이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설 전문 수사관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해당 교육을 거친 수사관들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방범죄수사대에 배치된다.

노덕현 기자

## 약자 자비행 ‘성과’ · 균형 발전 ‘미흡’

### 조계종, 21일 상반기 사업 평가 보고회

### 대중공사·세계대회 긍정 평가

### 성역화·균형 발전 등 저조해

### 하반기 승가청규 제정 추진

조계종이 상반기 주요성과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세계평화기원대회, 해외구호활동,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꼽았다. 반면 현 집행부 중점 과제인 중앙·교구 균형 발전 등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해 하반기 중점 추진키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7월 21일 ‘불기 2559(2015)년도 제34대 중점 정책과제 보고회’를 열고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공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웅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총무기과 및 산하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차·팀장급 중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국장 남전 스님의 22일 브리핑에서 알려졌다. 보고회에서 기획실은 총평을 통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5.16 세계평화기원대회 △네팔 등 해외 구호 사업 △세월호 1주기 추모법회와 성소수자 초청법회 △국유림경영및관리법 개정 △1급 승가고시 △신도 선혜품제 첫 시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전 스님은 “대중공사는 ‘중단 운영에 사부대중 의견을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세계평화대회는 한국불교 사상 최대 인원을 동원하면서도 안전 사고 없이 무사 회향한 점과 연동회와 함께 간화선을 홍보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역 사항으로는 진척이 없는 총본산 성

역화 사업, 중앙·교구 균형 발전과 100인 대중공사에서 제기된 중단 현안을 중책에 반영 등이 나왔다. 또한 총무원장 선거 제도 개선과 세계 대회 당시 중무원 차출로 빛은 업무 공백 등도 제기됐다.

남전 스님은 “총본산성역화사업은 예산 확보와 사용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면서 “올해 안에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현 집행부 임기 중 ‘첫 삽’을 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교구 균형발전 계획은 하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가동되면 올해 안에 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와 승가청규 제정이 이뤄진다. 남전 스님은 “승가청규 초안은 이미 나왔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수정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제정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2천만 불자님들을 위한

# 불경 황금 수의!!

남이 보는 옷이 아닙니다.  
온전히 불자님만을 위한 옷입니다.

고인에 대한 종교적 배려와 존중이 동반된 국내 유일의 수의  
부처님의 가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길 기원합니다.

**유사제품 주의요망** 신고전화 010-3071-3658

불경(황금)수의는 안동삼베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디자인 특허 원단 이므로 특허 및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사전통보없이 법무사를 통한 민, 형사고발 및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으신 고객분은  
**진품확인전화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확인전화 010-3071-3658

제조사 안동삼베닷컴 안동시 안기동 119번지  
판매처 안동종교수의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47 (별나라타워 505호)

**주문 및 상담**  
**031) 595-1237 / 010-2778-1971**

성분/대마100% 원사/중국 제조/한국(안동)

[특] 2,200,000원

[일부] 1,500,000원

악수, 버선, 도포(원삼)띠, 면모에 불교경전을 황금글씨로 새겨 부처님께 믿고 의지함을 기원하였습니다.